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18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7월 21일 (윤달 5월 28일) 금요일

## “천일염산업 활성화 위해 정부 구매제 시급”

### 이동수 생산자 공동대표, 쌀과 동일한 수급대책·소매처 다변화 등 요청

### “소비자 알권리 확대·국민건강위해 첨가물 원산지 표시 반드시 이뤄져야”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천일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천일염의 정부 구매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수 복신안 천일염생산자 공동대표는 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주관으로 무안 남악 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천일

염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

일염산업의 활성화 대책으로 정부 구매제 도입 등 쌀과 동일한 수급대책 실시,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등 천일염 소비처 다변화, 가격 하락에 일조한 30kg 포대 사용 제한 및 20kg 포대로의 표준화 정책 실시 등을 요청했다.

또 식품 첨가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를 통해 고추장, 된장, 절임배추, 젓갈류 등 소금을 주로 사용하는 식품들이 국산 천일염과 수염염, 또는 기계염을 사용하는지의 정보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20kg 당 2200원 선까지 급락한 국산 천일염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대한염업조합의 천일염 출하 규제 및 가격 호도, 20kg 포대 사용 정책 폐기, 수입염 및 기계염의 천일염 둔갑 단속 미비, 폭염으로 인한 과다 생산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첨가물 원산지 표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국산 갯벌 천일염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부의 천일염 산업 지원정책도 천일염 생산자 보다는 타일, 장판, 시일, 기계 사업자들에 편중돼 염전시설에 대한 업주들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생산환경이 오히려 악화돼 고용안정 및 가격보조, 비축창고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임흥민 도의원(신안)의 사회로 조지훈 박사(부동산학)의 ‘천일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해수부 권미연 천일염 담당관, 하동식 전남도 수산물유통기공과장, 박윤기 신안군 특산물유통사업소장 등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신안=박응식 기자



‘여름휴가 농촌에 보내기’ 캠페인 참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정현 광주시장이 20일 오전 시청 1층 로컬푸드 매장 앞에서 열린 ‘여름휴가 농촌에서 보내기’ 캠페인에 참여해 광주 관내 농업인들과 함께 출근하는 시 직원들에게 쌀과 부채를 나눠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여름 휴가철 서남해 뱃길 증편...여객선 6척 추가

목포해수청, 30일 여객 4만7000명·차량 1만여대 이용 가장 혼잡

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남 서남해 섬 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이 증편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1일부터 오는 8월10일까지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기간 여객수송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특별수송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목포해수청은 이 기간 동안 여객선 6척을 추가 투입해 서·남해지역 총 38개 항로에 68척의 여객선이 평상시보다 1160회 증가한 1만673회(편도기준)를 운항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장 혼잡이 예상되는 시기는 오는 30일로 여객 4만7000여 명과 차량 1만여 대가 섬을 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목포해수청은 관광객 등으로 인해 늘어난 교통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특별수송 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가급적 섬 여행 시 차량이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춘정 기자

## 내장산에 멸종위기식물 2급 ‘진노랑상사화’ 개화

내장산국립공원에 멸종위기식물 2급 진노랑상사화가 개화하기 시작했다.

진노랑상사화(Lycoris chinensis)는 내장산 일대의 생태와 지리적 특성을 대표하는 깃대종으로 분류된다.

20일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에 따르면 진노랑상사화는 꽃피는 시기와 잎이 나는 시기가 달라 꽃과 잎이 서로를 그리워 한다는 상사화(相思花)의 일종으로 한반도 고유종이다.

서식지가 남부 일부지역에 국한돼 있

어 멸종위기식물 2급으로 지정돼 있다.

백암사무소 측은 진노랑상사화가 최근 개화가 시작돼 이달말부터 8월 초까지 관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진노랑상사화 자생지는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어 탐방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백암사무소는 특정식물증식장에서 유전자원 증식기술 확보를 통해 증식한 개체를 탐방객들에게 개방하고 자유롭게 진노랑상사화를 관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속타는 엄마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가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가 증언한 것과 관련해 ‘제가 아무리 구치소에 있어도 암이다. 애정유리가 새벽 2시에 나가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 김세원)심리로 17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의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정씨가 지난 12일 정씨가 이 부회장의 재판에 나가 증언하게 된 경위에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이 활발하고 압박해서 씩이 두 살짜리 이들을 두고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의 변호인이 공개한 페이스북(CCTV 영상)에는 정씨가 이 부회장 재판이 열린 지난 12일 당일 오전 2시 6분쯤 집을 나서 승용차 조수석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최씨는 이 영상이 정씨가 특검의 회유로 증언대에 서게 된 정황으로 보고 있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자료사진=뉴스시스



최순실



정유라



장시호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아제는 평창 상사화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

PyeongChang 2018  
PyeongChang 2018